

읽고 듣고 보고 쓰는 모임



2026.9,16 오후 7시

예엄작은도서관

# 2026년 6월 9 · 16일

글 읽고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家的 형제들』  
「대심문관」(제 2부 5장 5)

음악 듣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15번>

그림보고

이반 크람스코이,  
<광야의 그리스도> 외

쓰기

대심문관 심문 참관 후기 쓰기

- 「대심문관」은 인간과 자유와 신에 대한 관념을 집대성한 책 속의 책, 대서사 속의 소서사로, 작중 인물인 이반 카라마조프의 창작품으로 소개된다.
- 산타크로체 대학교의 철학 교수 안토니오 말로는 이 챕터가 소설의 핵심이라 평가했으며,
- 저자 자신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심문관」이 수록된 제5권이 소설의 '정점'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러시아 정교회의 '백치' (юродивый, 유로디비)

- 러시아 정교회의 독특한 성인 유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Fool for Christ)'라고 번역된다.
- 사도 바울의 말씀("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에서 신학적 근거를 찾는다.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신성한 어리석음을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는 역설적 개념이다.

# 주요 특징

- 기행과 광기: 일부러 미친 척하거나 사회 규범을 파격적으로 어김
- 예언: 권력자에게도 거침없이 진실을 말함
- 금욕: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혹독한 환경을 견딤
- 역설적 행동: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 의미를 담음

# 러시아 정교회

- 동방 정교회의 한 갈래로, 러시아의 국민 종교나 다름없는 위치를 차지해왔다.

## 기원

- 988년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비잔티움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아래 있다가,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를 자처하며 독자적 위상을 키웠다.

#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

- 교황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 총대주교(Patriarch)가 수장
- 성상(이콘) 공경을 중시
- 전례가 매우 길고 장엄함
- 성직자 결혼 허용 (주교 제외)

## 역사적 굴곡

- 표트르 대제(18세기): 총대주교직을 폐지하고 교회를 국가 기관으로 편입
- 소련 시대: 극심한 탄압과 성당 파괴, 강제 무신론 정책
- 소련 붕괴 후: 급속히 부활해 현재 신도 수 약 1억 명 이상

## 현재

- 모스크바 총대주교가 수장이며, 현재는 키릴 총대주교가 그 자리에 있다. 푸틴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동방 정교회

- 로마 가톨릭, 개신교와 함께 기독교의 3대 분파 중 하나다.

## 기원과 분열

-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지만 \*\*1054년 대분열(Great Schism)\*\*으로 서방(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으로 갈라졌다. 분열의 주요 원인은 교황의 권위 문제와 성령 논쟁(필리오케 논쟁)이었다.

## 분포

- 주로 동유럽과 중동에 분포한다.
-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 이집트(콥트), 에티오피아, 시리아 등

# 핵심 특징

- **교황 없음**: 각국 총대주교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이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명예상 수위권을 가지나 절대 권한은 없음
- **이콘(성상)**: 성화 공경이 신앙의 핵심
- **전례**: 매우 길고 엄숙한 예배, 고대 형식을 철저히 보존
- **신학**: 서방보다 신비주의적 성격이 강함. "신화(神化, theosis)" —인간이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개념—을 강조
- **율리우스력**: 일부 교회는 아직 구력을 사용해 크리스마스를 1월 7일에 지냄

수장	가톨릭 교황	정교회 총대주교(복수)
중심지	로마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언어	라틴어 전통	그리스어·각국어 전통
신부 결혼	불가	가능(주교 제외)

## <마태복음 4장 1~11절>

- 1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2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3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4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5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6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7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8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 드린다.

9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10그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11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대심문관」(제 2부 5장 5)**
- 표도르 빠블로비치 카라마조프 : 가장.
- 드미뜨리(미ჟ냐, 미ჟ넨카, 미ჟ지카, 미뜨리) : 큰 아들.
- 이반(바냐, 바네치카, 반카) : 둘째 아들.
- 알료샤(알렉세이, 알료쉬카) : 셋째 아들.

「... 내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건설한다면,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단 하나의 미약한 창조물이라도,  
아까 조그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던  
불쌍한 계집애라도 괴롭히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므로 그 애의 보상받을 수 없는 눈물을  
토대로 그 건물을 세우게 된다면, 그런 조건  
아래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니? 자, 어디 솔직히 대답해 봐!」

「아니,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알료샤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반의 결론은 명확하다.

만약 신이 약속한 우주적 조화와 영원한  
천국(궁극적 행복의 건물)이 존재한다 한들,

그것이 단 한 명의 무고한 어린아이가 흘린  
눈물을 대가로 한 것이라면

자신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으며,  
신이 짜놓은 세계의 '입장권을 정중히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알료샤는 이에 대해 "모든 인간을 대신해  
무고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의 대속과 용서를 통해 건물이 완성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즉, 알료샤는 고통의 문제를 초월적 신적  
사랑으로 해결하려 한다.

## 이반의 사유 흐름:

"너는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조화를 줄 수 있다고 믿지?"

그런데 현실을 보아라. 그 예수가 지상에 남겨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가 준 '자유의지'와 '초월적 사랑'은 너무나 고결해서 나약한 인류를 도리어 도탄과 고통에 빠뜨렸을 뿐이다.

그래서 현실의 교회(대심문관)가 예수의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했다."

[4장 반역]

- 신과 예수의 설계도 ——>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고통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결과: 무고한 아이들의 눈물과 고통 발생  
——> 이반의 거부)



⇓ [논리적 이행]



[5장 대심문관]

- 대심문관의 수정 ——> "예수의 설계는 실패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고  
빵과 기적을 주어  
지상에 진짜 평화의 건물을 짓겠다."

- 천상의 힘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유행 : 단테, 『성모의 지옥 방문』
- 중세 말기부터 16세기 르네상스 시기까지 유럽 문학 및 민담에서 유행했던 신성 (Divinity)의 세속화 및 가시화 경향.
-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영역에 존재하던 신, 성모, 천사, 악마 등의 종교적 대상을 인간이 사는 지상의 물리적 공간으로 하강시키거나, 인간의 가치관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서사화하여 대중적 문학의 무대로 가져오는 창작 방식을 뜻한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대심문관)이  
창조주이자 천상의 권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문하고 감금한다는 '대담한 설정'은 당대  
문학적 유행이었던 "천상의 힘을 지상으로  
끌어내려 인간의 논리와 부딪히게 만드는  
방식"을 극대화한 것

(p 62) 예수는 <세 가지 시험>에서 경고와 지적을 충분히 받음

→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절

→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교황)에 전권을 넘김

(p63) 복음서 원전에서 '돌로 빵을 만드는 시험'이 "신의 아들로써 기적을 행해 보라"는 신성 증명의 요구였다면,

-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서는
- "기적과 빵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굶주림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인간에게 고결한 영적 자유를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선택으로 재해석된다.

<p 67> 대심문관이 소설의 배경인 16세기(약 1500년대 중후반)로부터 "벌써 8세기가 흘렀소"라고 말하는 시점은 역산하면 **8세기 중엽인 700년대**로 수렴된다. 이는 서양 중세사에서 교회가 세속적 영토와 군사력을 쥔 지상 제국으로 탈바꿈한 결정적 사건들과 일치한다.

- **피핀의 기증 (756년):** 프랑크 왕국의 국왕 피핀 3세 (Pippin III)가 롬바르드족에게서 빼앗은 이탈리아 중부 영토를 교황 스테파노 2세에게 바친 사건이다. 이를 통해 최초의 가톨릭 세속 국가인 '교황령 (Papal States)'이 공식 출범했다.
- **카를 대제의 대관식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카를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교황청은 영적 권위를 넘어 지상의 제국들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로마와 시저의 칼'을 손에 쥐게 되었다.

(p67)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다.

(p68) 결국 우리들한테서 빵을 받아 든 그들은 우리들이 돌멩이를 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손으로 벌어들인 빵을 거두었다가 다시 나눠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들의 기쁨은 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우리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소. 왜냐하면 우리들이 없던 시절에 그들이 제 손으로 벌어들인 빵이 저희들 손 안에서 돌멩이로 변했지만, 우리들한테 돌아온 다음부터는 바로 그 돌멩이가, 저희들 손 안에서 빵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오.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쥐고 얻어낸 물질적 풍요보다, 자신의 자유를 지배자에게 헌납하는 대가로 배급 받는 안정감을 훨씬 더 갈망한다.

- 교회(권력)는 그들이 생산한 것을 통제하고 수탈(거두었다가)한 뒤, 시혜를 베풀듯 다시 분배(나눠 준다)할 뿐이다.
- 놀라운 점은 백성들 역시 이 사실을 머리로 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 인간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공포가 존재하는데, 바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유의 무게'이다.

- 여기서 '빵이 돌멩이로 변했다'와 '돌멩이가 빵으로 변했다'는 것은 실제 물리적 변화가 아닌 **심리적·사회적 상태에 대한 은유**이다.
- **빵이 돌멩이로 변하는 경우 (자유로운 상태)**: 교회의 통제 없이 인간이 온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제 손으로 빵을 벌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약탈하며 사회적 무정부 상태(chaos)를 초래한다. 자유라는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그것은 고통과 분열의 원인이 될 뿐이기에, 제 손에 쥘 빵조차 삼킬 수 없는 '돌멩이'처럼 무가치하고 딱딱한 저주가 된다.

- **돌멩이가 빵으로 변하는 경우 (복종의 상태):** 반면,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자유를 교회에 온전히 저당 잡히고 지배를 수용할 때, 사회에는 비로소 질서와 평화가 찾아온다. 교회가 백성들의 자유를 수거하는 대신 제공하는 안정된 질서 속에서는, 설령 보잘것 없는 돌멩이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p68) 도스토옙스키가 이반의 입을 빌려 가톨릭의 고해성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는 상품'처럼 만들어 인간을 영원한 정신적 미성숙 상태(노예 상태)에 가두기 때문이다.

-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러시아 정교회의 정신은 이 소설의 다른 축인 **조시마 장로**를 통해 드러난다. 조시마 장로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만인의 연대성'을 주장한다.

-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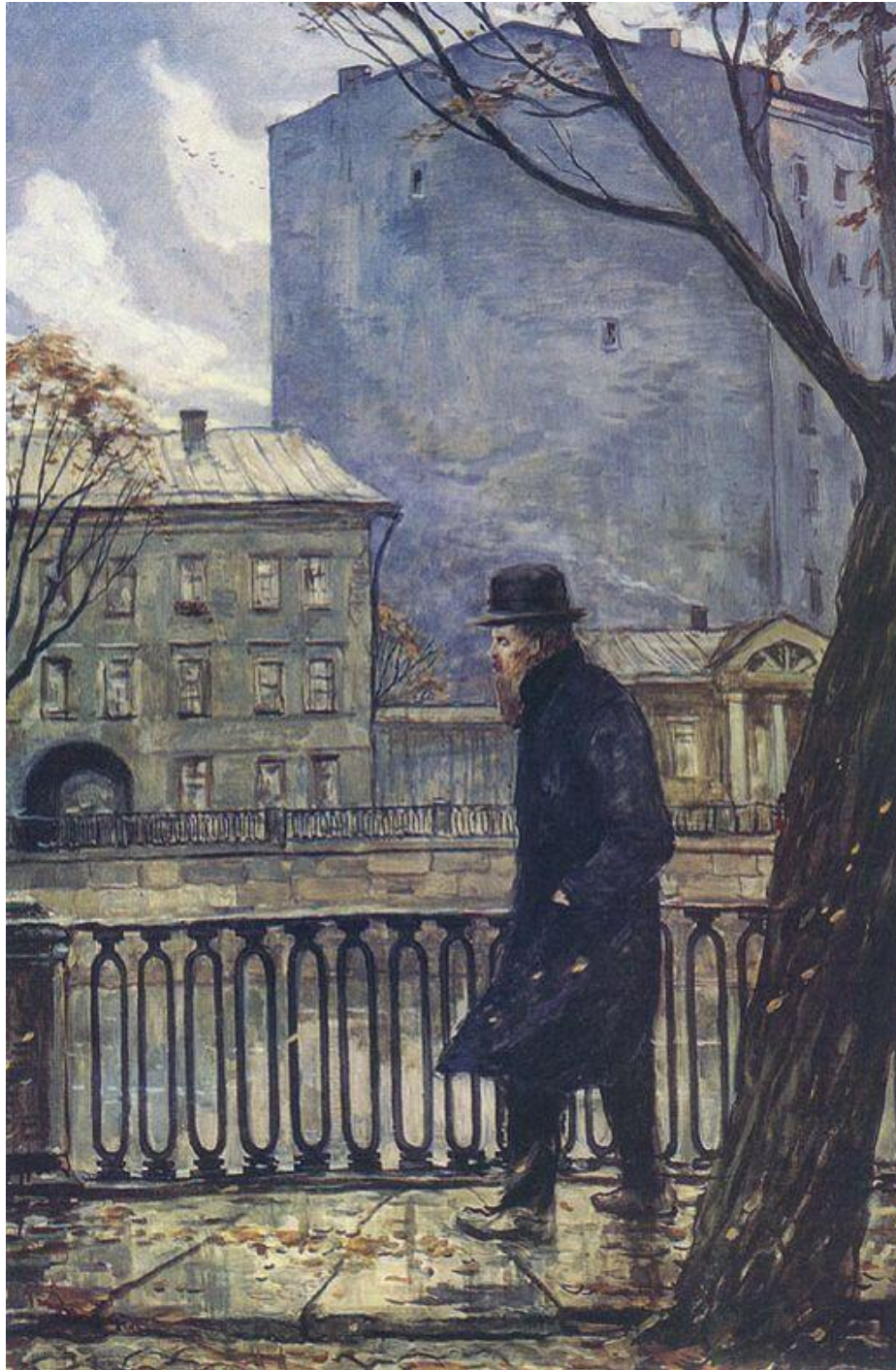
- **도스토옙스키의 시각:** 권력자(대심문관)가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질 테니 넌 내게 복종하라"고 기만하는 것이 가톨릭의 방식이라면,
- "우리 모두가 서로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짊어지자"며 눈물로 형제를 껴안는 것이 정교회적(그리스도적)인 참회라는 것이다.

- '카라마조프의 저열한 힘'은 도덕이나 이성, 종교적 신념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 본연의 가공할 만한 생명력**이다.
- **맹목적 에너지**: 아무리 삶이 부조리하고 허무할지라도, 심지어 영혼이 타락과 부패 속에서 질식할지라도, 기필코 살아남아 삶을 탐닉하게 만드는 **질긴 생명 본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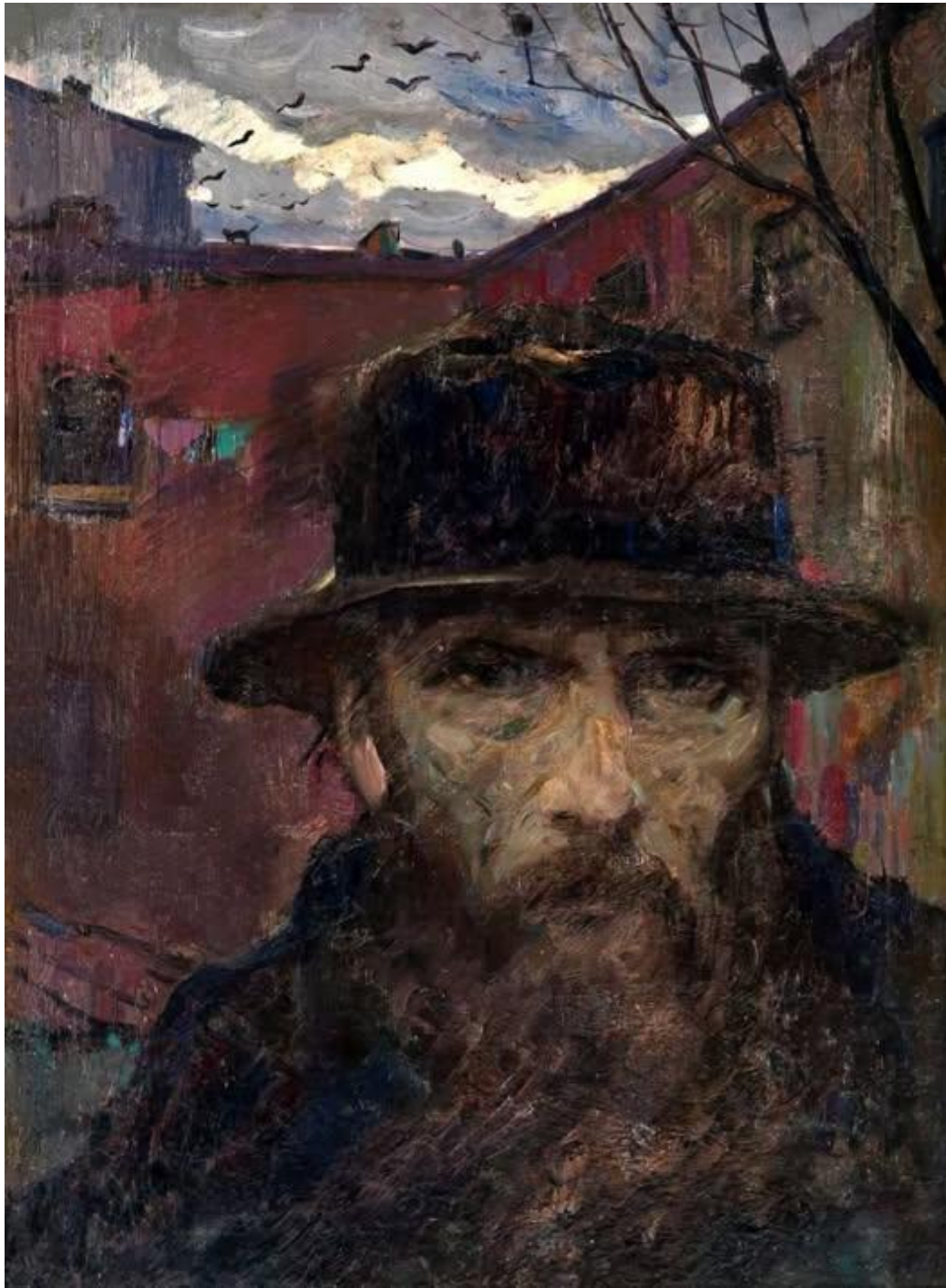
- **이반의 고백:** 이 대화 직전에 이반은 알료샤에게 "비록 삶을 믿지 않고, 삶의 질서에 환멸을 느낄지라도, 끈적끈적한 봄의 새잎을 사랑하고 푸른 하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논리적으로는 자살하거나 파멸해야 마땅한 허무주의자 이반이 서른 살까지는 기여이 버티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 가문 고유의 '저열한 생의 집착'이다.

- **'카라마조프 식'**이라는 것은 천상(신성)의 고결함과 심연(소돔)의 더러움을 한 영혼 안에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 양극단으로 격렬하게 요동치는 인간성을 뜻한다.
- 소설 속에서 큰아들 드미트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 "인간의 마음은 너무 넓어, 오히려 넓어서 탈이지. 난 그걸 좁히고 싶어. 마돈나(성모)의 이상을 마음에 품고 시작한 인간이 결국 소돔(방탕)의 이상으로 끝을 맺는단 말일세."
- 아버지 표도르와 큰아들 드미트리야가 보여주는 육욕과 방탕, 파괴적 충동이 이 힘의 한쪽 극단(저열함)이다.
- 반면 셋째 알료샤가 보여주는 종교적 순결함과 무조건적인 자비 역시 이 힘의 다른 쪽 극단(고결함)이다.
- 이반은 자신이 그 더러운 피(방탕과 부패)를 이어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지성(사상)이 무너지더라도 가문의 그 질긴 생명력이 자신을 어떻게든 지탱해 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 알료샤가 "형이 가진 사상으로는 불가능해요"라고  
 알곡을 찌르는 이유는 이반의 허무주의적 사상('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이 결국 영혼을 파멸  
 로 이끌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성적으로 신과 세  
 계를 거부하는 이반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정신적  
 지주'가 없다.
- 이에 대해 이반이 "어쨌든 까라마조프 식이 될 거야  
 "라고 답하는 것은, 고결한 사상이나 종교적 구원이  
 없더라도, 오직 **진흙탕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카라  
 마조프 고유의 생리적·동물적 생명력(저열한 힘)의  
 관성만으로도 서른 살까지는 기어코 살아갈 것**이라  
 는 비장하면서도 철저히 세속적인 선언이다.
- 결국 이 힘은 인간을 가장 추악하게 타락시킬 수도  
 있지만, 역으로 삶의 모든 부조리를 견뎌내고 대지  
 위의 발을 붙이게 만드는 카라마조프 가문의 양날  
 의 검과 같은 원초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Ilya  
Glazunov:  
Dostoevsky  
in  
Petersburg



일리아 글라주노프 삽화 연작

[F. Dostoevsky - Ilya Glazunov](#)





# 대제사장 앞에 선 그리스도

